

종단소식

조계종

호국 전통장병 천도법회

대구 내원정사(주지 정권)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제17회 군·경전몰장병 호국영령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인환(동국대 교수), 고산스님(쌍계사 주석) 등 8명의 초청 법사가 매주 수요일 법문하며 6월 26일에는 고창 선운사 도솔암으로 방생법회를 떠날 계획이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기공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는 6일 구 해인초등학교에서 성보박물관기공식을 가졌다. 연면적 9백47평에 지상2층 지하층 규모로 건립되는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금년말 완공 예정이다.

태고종

승려 연수교육일정 발표

총무원(원장 인옥)은 4월 28일 97년도 승려연수교육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승려 자질 향상과 종단관 함양을 목적으로 열리는 올해 연수교육은 총 4차에 걸쳐 진행되며, 특히 5년 미만의 젊은 스님들을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태고종립 선암사에서 열린 연수교육 연차별 일정은 1차 6월 23~25일, 2차 7월 8일~10일, 3차 7월 29일~31일까지 2박3일 간이며, 4차는 8월 28~29일까지 이틀간이다.

태고사 거제도 방생법회

태고사(총무 지화)는 4월 20일 신도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도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방생법회에서 신도들은 국운융창과 남북통일, 가내평화를 부처님께 기원했다.

천태종

북주민 이웃돕기 바자회

서울 성통사 신도회(회장 최금령)는 4일 신촌 마카로니에서 불우이웃 및 북한주민돕기 '바자회 및 하루차집'을 열었다.

참기름, 고추, 깨, 각종 나물 등을 판매한 이날 바자회는 사할 신도회가 북한주민돕기에 나섰다. 이번 바자회는 또 바자회에 이어 하루차집을 열고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기꺼워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진각종

종조탄생절 96주 법회

불리원(원장 성초)은 10일 불리원 총인원 종조전에서 '제 96주년 종조탄생절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종단 간부 및 스승, 종립학교장, 신학대학장 등 모두 4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종조 영정 개막식, 헌화, 종조범어 봉독, 불리원장 봉축사 등이 이어진다.

부산청년회 30돌 기념

부산지부청년회(회장 김미선)는 4월 26일 명륜심인당에서 부산지구 스승 및 전국청년회 임원 및 청년회원, 부산지구 신교도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이어 놀이마당으로 이어진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각 심인당 학생회별 서원가 부르기, 연극, 창작무용, 장기자랑 등이 펼쳐졌다.

총화종

체달등 징계사 대서면

총무원장 남정순님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일 그동안 체달도침된 종단스님 10여명에 대해 전원 사면복권키로 했다.

남정순님은 "체달도침된 스님들을 방치하는 것은 부처님 자비사상에 위배되는 물론 중 단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면복권의 배경을 설명한 뒤 "어두운 사바세계에서 감동하던 스님들이 다시 부처님 가피의 품에 안겨 불국정토 건설에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문종

총무원 주관 사경대회

보문사를 비롯 전국 종단소속 사찰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봉축 사경대회'를 개최한다.

총무원(원장 해일)이 주관하는 이번 사경대회는 사찰별로 선정된 우수작들을 한데 모아 이중 당선작을 뽑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당선작은 부처님 오신날 당일 보문사 경내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보문사(주지 법준)는 14일 1시부터 연극, 풍물놀이, 어린이 발표회 등의 공연과 보문종 일대에서 제등행렬을 펼치는 봉축행사를 실시한다.

하늘아래 첫절

지리산 법계사 보궁선다

2층 70여평 이달말 착공 화엄수행 도량으로 가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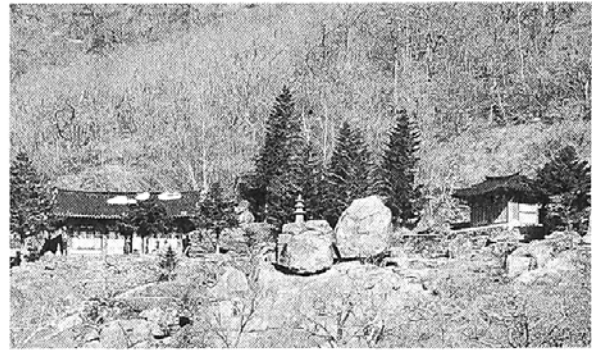
우리나라 하늘아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인 지리산 3대명찰의 하나인 법계사(주지 진옥)가 적멸보궁을 건립한다.

천황봉아래 자리한 법계사(허발 1450m)는 8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운번창과 불교중흥을 위한 2층 70여평 규모의 적멸보궁 건립사업을 3년계획으로 5월부터 시작한다. 행기를 이용하여 건축자재를 운송하는 난공사로 진행될 법계사 적멸보궁은 신라시대 석탑으로 부처님진신사리가 봉안된 3층석탑(보물 제473호)을 마주보며 1층 48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인 요사채와 2층은 21평규모의 전통목조건물로

건립된다. 이를 위해 법계사는 최근 1천3백여평의 국유지를 종교용으로 지목 변경하고 정부보조 1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

신라진흥왕 5년 연기조사가 지리산 서쪽에 화엄사 4사자 석탑, 동쪽은 대원사 9층 석탑, 중앙에는 법계사를 창건하고 3층석탑을 세워 각각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했었다.

그간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의 기운이 쇠퇴한다'는 전설에 의하여 수차례 일본인들에 의해 소실됐다. 중창을 거듭했으며, 해방후 지리산 공비도발작전시 소실된 것을 1979



◇지리산 천황봉아래 위치한 국내 최고지대사찰 법계사가 적멸보궁을 건립한다. 사진은 지리산 법계사 전경.

년 조재화 조재권 조재영불자들이 있던 법계사를 복원하여 국민적인 인법당과 산신각이 복원되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왔다. 법계사 주지 진옥스님은 "고승대덕스님들의 수행처로 명맥을 이어

왔던 법계사를 복원하여 국민적인 인법당과 산신각이 복원되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왔다. 법계사 주지 진옥스님은 "고승대덕스님들의 수행처로 명맥을 이어

김원우 기자

입주건물 부도사태 청주BBS 피해 우려

오랜 산고 끝에 4월 25일 개국한 불교청주방송이 또 한번의 회오리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불교청주방송이 입주해 있는 충청매일신문사의 모체적인 진흥건설과 진흥주택(대표 정진택)이 자금난으로 4억5천여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4월 30일 1차 부도처리 된 것.

불교청주방송은 지난해 가을 정진택 사장으로부터 충청매일신문사 8층을 무상 기증 받았다. 그러나 정사장이 이를 반복해 현재 3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료 5여만까지 지급, 설정증까지 마친 상태.

진흥측의 부도가 계속 확산될 경우 불교청주방송국에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불교청주방송은 3일 운영위원회를 갖는다. (2일 현재)

TV방송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 다채

btn '황룡사대종을 찾아라' KBS '팔만대장경'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TV 방송사는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btn △11일= '황룡사 대종을 찾아라' '특선 뮤지컬 이차돈의 하늘' '능호스님의 생생공양' △12일= '특선 밤화 석가모니 1·2부' '동남아시아의 종교축제' (13일까지) △13일= '진흙 속의 연꽃' △14일= '예불'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붓다의 고향을 가다' '봉축 음악회' '깨달음의 땅 수타타 아카데미' '불교의 시각에

서 본 생명복제' '임진란의 의승수군' '생방송 연등·연등' '특선 방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채' '특선 영화 리틀부다'

KBS △14일= '팔만대장경' '산사의 소리'

MBC △14일=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나'

SBS △12일= '천상천하 유아독존' '고려대장경'

EBS △14일= '달마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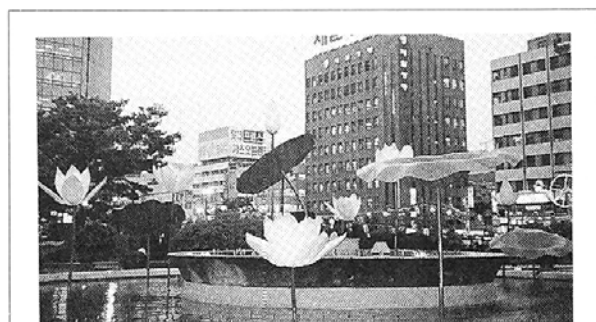
◇김재홍교수 ◇김삼영교수 ◇김홍국씨 ◇조한순씨

불교방송 진행자 대폭교체

'아침을 열며' 김재홍교수 '백팔가요' 김홍국씨

불교방송이 1일 불 개편과 더불어 진행자를 대폭 교체했다. 간판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BBS 백팔가요' (PD 유병직)가 '김홍국의 백팔가요'로 새롭게 단장하고 김홍국씨를 진행자로 내세웠다. '무명을 밝히고' (PD 이영준)는 중앙승가대 김삼영교수가 새로 진행을 맡았다.

신설프로그램 가운데 생생한 생활·교통정보 등으로 청취자들의 출근길을 밝혀주는 '아침을 열며' (PD 박상필)는 경희대 김재홍 교수가,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이 만나는 '인연의 길' (PD 이선희)은 아동문학가 조한순씨가 진행한다. (연)



부석탑을 복원하고 평화통일과 부산발전을 기원하는 부산여말의 봉축 탑·연꽃이 4월 29일 화려하게 불을 밝혔다. 봉축탑은 높이 10.5m 8각 9층으로 삼광사서 제작했으며, 연꽃은 영남대 손규호 김시와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부산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오)는 부산지역 사찰 스님들과 문정수 부산시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을 갖고 이어 탑돌이를 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중원 미륵사지 명칭 誤記

도로표지판·안내 책자 등에 '미륵사지'로

중원 미륵사지(사적317호·충주시 삼도면 미륵리)의 명칭이 도로안내표지판이나 홍보책자에 '미륵사지'로 잘못 표기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월악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점차 일반인과 불교신도들의 발길이 잦아진 미륵사지는 수안보에서 사지까지의 16km 구간 597면 지방도변에 설치된 도로안내표지판을 비롯 각종 안내책자에 미륵사지(사적150호)로, 혹은 절의 옛 이름이 미륵사지였던 것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학계에서는 미륵불을 봉안했던 사찰(석굴사원)이었다는 점에서 미륵대원(彌勒大苑)

마음 형제없는 주장자

주장자란 손으로 들고다녀서 주장자가 아니라 마음에 중심을 새워서 주장자이다. 주장자는 누가 쳐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는 것이다. 마음의 중심이므로 뿌리도 형제도 고정된 것이 없이 도는 것이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부처님 말씀이 절실한 때입니다”

만약 정전의 가품침과 세속의 문건을 보시하면 해박한 지혜의 과보를 받게 되며 밝은 등을 보시하면 눈이 밝아지는 과보를 받게 된다... - 육취운회경 -

사회의 어둠을 밝혀줄 현대불교신문을 보냅니다. 군부대·경찰·교도소·양로원·中高불교학생회·도서관·가까운 이웃...

- 현대불교신문은 2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합니다 ■ ■ 현대불교신문이 있는 곳, 그곳이 곧 법당입니다 ■ ■ 현대불교신문, 곁에 두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

- 보낼곳
▷ 국내 : 군부대(법당, 포교당, 군승, 불자장병) : 경찰(법당, 포교당, 경승, 불자경찰, 개인) : 교도소(재소자중 불자, 교도관) : 복지회관(전국 시·도·군·읍면 소재 회관) : 대학(불교학생회 및 도서관) : 도서관(전국 시·군·구립 및 사립도서관 열람용) : 개인불자(시주자가 지정하는 분:지정법보시)
▷ 국외 : 해외의 한국 사찰·포교당 : 각국 불교 관련 단체

- 보시방법
▶ 법보시
본사 소정 구좌에 1,000원 이상 송금 하시면 모아서 신문사가 군부대등 필요한 곳에 보내드립니다.
▶ 해외 법보시
지정법보시와 동일 1부 80,000원(우편료 포함)
▶ 지정법보시
특정인 또는 특정의 기관에 신문을 보시하는 경우로서 보낼 곳의 주소·전화번호, 보내는 사람의 주소·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1부당 40,000원(1년분)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본사 지로 이용 입금
※ 계좌 : 국민 023-25-0007-820 현대불교신문사

- 정기구독자 추천
친지·이웃등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정성껏 신문을 보내 드립니다.
1년 정기구독자 4만원, 6개월 22,000원, 1개월 4,000원

Form for subscription and donation information, including fields for name, address, and amount.